



남원 신관사또공연단의 화려한 봄나들이가 3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신관사또공연단의 봄나들이 본격 시작

남원예촌광장·광한루원서  
31일부터 10월 말까지 공연

남원 신관사또공연단의 화려한 봄나들이가 오는 3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로 12년 연속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관사또부임행차는 남원의 대표 관광효자 상품으로써 시민이 주체가 된 관광자원이다. 남원시의 대표 이야기 콘텐츠인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퍼레이드와 마당극으로 구성된 신관사또부임행차는 지난 2007년 창단 이래 총 416회의 공연을 운영하며 관광남원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 2019년에도 신관사또공연단은 변함없는 모습과 한층 성장한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했다. 지난 2월부터 3월말까지 매일 밤 7시부터 10시까지 틈날로 악기교육, 전통무용, 댄스, 연기

연습 등 각자의 개인기를 연마하고, 틈날로 협동 단결된 장계를 선보이기 위해 바쁜 저녁시간을 쪼개며 땀 흘려 연습해 왔다. 올해에는 그동안 주말(토, 일)에만 상설운영해 온 공연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진행할 계획이다. 매주 토요일은 퍼레이드와 마당극을 진행하고, 일요일은 광한루원에서 마당극만 진행한다. 금요일 야간(19시~20시)에는 남원예촌광장에서 운영한다. 또한 여름시즌을 겨냥한 신규 마당극 <흥부가 돌아왔다>를 기획 운영한다. 신규마당극은 남원의 4대 고전중 하나인 흥부전을 각색한 퓨전공연물로 4~5월 연습을 거쳐 6월부터 2달 동안 야간에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에도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단은 외래관광객 600만명 유치에 전국을 누비며 남원 홍보 전도사로서 다양한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먼저 오는 4월 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앞 광장에서 '남원의 봄(春·引·春·香)' 홍보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춘향이 홍보대사와 남원홍보대사, 춘향제전위원,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단 등 100여명이 참여해 제89회 춘향제 및 광한루 600년 기념행사 등을 화려하게 알릴 계획이다. 또한 4월~5월은 고속도로 휴게소, 전북 도민체전 홍보활동, 6~7월은 대구, 경남권, 9월~10월은 부산관광박람회, 도심권 홍보활동 등 찾아다니는 홍보마케팅을 연중 추진한다. 100여명의 시민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는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은 올해에도 남원관광의 최일선에서 상설공연의 새 역사를 쓸 것이다. 남원시에서는 "대표 공연물인 신관사또부임행차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 발전시킬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남원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벚꽃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한마당

30일부터 정읍예술제 개최... 벚꽃축제와 연계 다양한 공연 선보여

정읍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종합예술축제인 '제23회 정읍예술제'가 벚꽃이 완연한 오는 30일 막을 연다. 예술제는 내달 3일까지 닷새 간 정읍천변 일원에서 펼쳐진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기 위한 예술축제로, '2019 정읍 벚꽃축제'와 함께 진행된다. 축제는 사)한국예총정읍지회(회장 최창수)가 주관한다. 정읍예총 7개 회원 단체(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작가, 음악, 연극)가 참여한다. 행사 첫날인 30일 식전행사로 국악협회와 무용협회의 '국악제'와 '무용제'가 공연된다. 31일에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벚꽃공연'과 음악협회의 '음악제',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진다. 또 행사기간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협회별로 작품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미술협회의 20미터 천에 벚꽃그림 그리기, 사진작가협회의 벚꽃사진촬영대회, 문인협회의 한 줄로 써보는 시, 연극협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연극 체험 등의 행사도 진행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이 밖에도 정읍시립농악단의 정기공연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등도 마련돼 있다. 시민과 관광객이 흠날리는 벚꽃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기자

## 박양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내달 1일 재논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약 1시간 늦게 회의장에 들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보지 않고 채택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면서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한국당 문체위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를 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회의에 올

리는 데 합의한 것은 맞지만 보고서 (채택)를 합의한 적은 없다"면서 "(결과)보고서를 보지 않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 보고서 (채택)는 합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박 후보자는 9번의 위장전입과 탈루 등 10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장관 후보로 부적절하다. 우리는 장관이 사퇴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보고서는 다시 합의한 후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

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상정 때문에 (문체부가) 세종에서 올라왔는데 (한국당이) 합의한 바 없다고 한다. 사실 3당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이라며 "채택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무위원 후보자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오늘 논의를 하지 않으면 4월1일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내달 1일 박양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뉴시스

## "혼이 담긴 문학 통해 예향 고창의 명성 널리 알릴 것"

고창 한국문인협회, 나순희 회장 선출

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가 지난 26일 고창 우성예식장에서 제13대 문인협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사)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는 이상인 초대지부장을 시작으로 창설됐고, 현재 나순희 회장 및 80여명의 문인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학단체다. 신임 나순희 문인협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예향 고창의 정서와 혼이 담긴 문학작품

을 통해 고창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고창문학의 명성이 자자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제12대 문인협회 부회장으로 일하며, 꾸준히 시와 수필 작품을 발표해 왔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나눔과 봉사, 기부전국 고창만들기'에 함께해 왔다. 한편, 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는 꽃무릇 시화전시, 시낭송 및 고창문학상 등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